

# “이렇게 재미있었나요” ... 전국 바둑 열풍

### 기원·바둑학원, 수강생·문의 급증... 서점가 관련서적 불티

### 국내 유일 순천 한국바둑고·바둑부 창단 광주 첨단중 관심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15일 5국을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이세돌’과 ‘바둑’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3차례의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이세돌 9단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거둔 값진 1승에 지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지난 13일 4국 만에 이세돌 9단이 첫 승을 거둔 이후 지역 기원과 바둑학원에는 바둑 수강생과 문의 전화가 급증했으며, 지역 서점가에는 바둑 관련 책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온라인에서는 이세돌과 관련된 신조어와 패러디가 만들어지는 등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이세돌 신드롬’이다.

◇지역민의 ‘뜨거운 박수’=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기원에 모인 20여명의 바둑 동호인들은 이세돌과 알파고 TV 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날 마지막 대국을 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냈다는 김모(52)씨는 “대국 시작부터 초읽기, 계가까지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진행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며 “이세돌 9단이 결국 1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끈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규혁(33)씨는 “이번 대국만큼 긴장감 있는 스포츠나 경기를 보지 못했다”며 “이세돌 기사가 ‘내가 진 것일 뿐 인간이 기계에 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인간 이세돌이 이긴 것이나 다를 없다”고 말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이세돌을 격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5국 시작 전 트위터에는 ‘마지막 승부

응원합니다!’ ‘젠들 유종의 미를 거두자!’ 글이 잇따랐고, 승부가 끝난 뒤에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바둑이었다’, ‘이세돌 기사 덕분에 바둑이 이렇게 재미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글이 이어졌다.

◇이세돌 신드롬=승부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는 이세돌과 바둑 열풍이 뜨겁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졌던 바둑학원에는 수강생과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동작프로바둑기사학원 이엘리스(46) 원장은 “프로 바둑기사가 나오는 ‘응답하라 1988’ 때부터 수강생이 점차 늘기 시작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으로 지난해보다 청소년 수강생이 4~5배 늘었고, 다시 바둑을 시작하고 싶다는 성인들의 문의도 많다”며 “‘이세돌 효과’로 바둑이 두뇌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듯 같다”고 말했다.

지역 서점가에서도 그동안 먼지만 쌓여 가던 바둑 서적이 등장했다. 또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공지능 기계군단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존 코너’의 이름을 빌려 ‘돌 코너’라는 별명도 생겼다.

온라인에서는 이세돌의 이름에 영어로 ‘신’을 뜻하는 ‘갓(God)’을 붙인 ‘갓세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공지능 기계군단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존 코너’의 이름을 빌려 ‘돌 코너’라는 별명도 생겼다.

◇제2의 이세돌 키우는 바둑학교=바둑 열풍 속에 국내외의 유일의 바둑학교와 바둑부를 창단한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

다. 순천 한국바둑고는 국내 유일의 바둑 특성화고다. 지난 2013년부터 명문 바둑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길을 모색했다. 현재는 모두 120여명의 학생들이 바둑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첫 졸업생도 배출했다. 학교 측은 프로그래머 출신의 김민희 3단과 김남준 3단을 강사로 채용해 학생들을 수준별로 지도하고 있다.

광주 첨단중은 15일 바둑부를 창단했다. 주장 이도현(15)을 비롯해 모두 6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오배령 아마 6단이 코치를 맡았으며 이세돌과 알파고의 해설을 맡은 송태권 9단이 재능기부형태로 선수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 문성중·고도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바둑부 창단에 나섰다. /김경민기자 kki@



15일 창단한 광주 첨단중학교 바둑부 학생들과 지도교사가 이날 오전 학교 바둑연습실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첨단중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바둑부를 창단해 올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인공지능 위력 충격적... 법·윤리적 규범 마련 시급

### 금융·회계 등 전문직 확대... 법조계 “입법체제 논의 시점”

인간지성의 보루가 인공지능(AI)에게 무너졌다. 이세돌 본인이 “알파고 한 번만 승리해도 사실상 인간의 패배”라고 했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의료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다. 조만간 속기사, 동시통역사, 운전기사에 대신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 애널리스트, 의사, 기자 등 전문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는 서둘러 법률적·제도적·윤리

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법조계 인사는 “현행 법체제는 향후 도래할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규제가 공존하는 입법체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며 “치료 목적은 육성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는 규제하는 ‘유전자 복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에만 관심을 두서는 안 된다”면서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함께 담겨야 한다”

고 덧붙였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기술혁신은 한 쪽 방향을 향해 무한정이고 불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기술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를 불러오는 중”이라며 “인공지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지 않고 선용될 수 있는가에 법률적·제도적·윤리적·기술적 바탕을 강화하는데 지혜를 모아 그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은 “기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범죄예방은 물론

수사·교정·보호관찰까지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며 “기능형 로봇을 형사사법 절차에 활용하려면 역할과 성격을 분명히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상할 침해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의 보유제한 기간, 경찰의 인공지능 장치보유·사용에 관한 감독 규정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인공지능의 규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책임, 로봇의 자율성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구축, 인공지능 관련 오류와 오작동 발생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2    달뜨기 12:08  
해질 18:41    달지기 01:30

### 한낮 포근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C)

광주	3/17	보성	1/15
목포	3/13	순천	5/17
여수	6/14	영광	0/15
나주	1/17	진도	2/14
완도	4/16	전주	3/15
구례	1/17	군산	3/12
강진	2/16	남원	2/15
해남	1/16	홍산도	4/11
장성	0/16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동~남동	0.5	동~남동	0.5
남해	남해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남해	동~남동	0.5	동~남동	0.5
서부	남해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남해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 주간 날씨

날씨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씨	☁	☁	☁	☀	☀	☀	☀
강수량	6/13	10/15	11/19	7/17	7/17	6/17	5/16

## 대인시장 또 갈등... 상인회 총회 무산

광주 대인시장상인회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다툼으로 15일 열릴 예정이던 대인시장상인회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인시장 정기총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대인시장상인회는 현 상인회장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상인회 정관 개정’ 및 ‘상인회장 선거’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상인회 회계장부 내부 감사’와 ‘범죄자가 개최하는 정기총회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

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먹살을 잡는 등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지난 1월 대인시장 상인회장 홍모씨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160여만원의 부당하게 타내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 임기는 이날 말게 끝났다.

비대위 관계자는 “홍 회장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비리가 드러났는데, 총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후 선거에서도 홍 회장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회장으로 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인시장 상인회 회원은 200여명이다. /김경민기자 kki@

## 진도 장죽수도서 해저계곡 발견

### 44km·최대수심 62m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몰살이 세기로 유명한 진도 일대 수심을 정밀 측량해 해저계곡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해저계곡은 진도와 조도 사이 장죽수도에 약 44km에 걸쳐 있으며 서울~오산 거리와 비슷하다. 수심은 약 45~62m로 주변 수심보다

10~20m 정도 깊다. 최대 수심(62m)은 하조도 동쪽 약 5km 해역이다.

이 해저계곡은 진도 부근을 흐르는 강 한 조류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양조사원은 설명했다.

해양조사원은 정밀한 해양조사를 통해 진도 일대 선박 통항 안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1,2,3'**   **맥소 '애비오'**   **맥소 '스쿠프'**   **맥소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경험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1599-9040

☎☎☎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강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광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